

신약학

야고보서가 코로나19(Covid-19) 대유행병 시대의 교회에게 주는 교훈: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약 1:21)

주기철(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지금 세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교회 또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맞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참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거나 아니면 신앙의 본질을 잃은 채 종교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병들고도 병들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흠어져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상황과 유사한 듯하다. 본 글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상황을 야고보서 본문

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보면서,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다. 이를 통해 말씀으로 낱음을 입은 성도는 시련 중에 미혹되어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혹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들이 낱음을 입을 때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믿고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주제어: 코로나19, 말씀으로 낱음을 입음, 미혹되어 진리를 떠남, 심어진 말씀, 겸손히 말씀을 받음

1. 들어가며

지금 세계는 코로나19(Covid-19)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8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되고, 4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사망했다.¹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다. 이제 백신이 보급되어 접촉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19 대유행병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 교회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송남순은 “한국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거나 교회학교를 열지 않은 예가 없기에 너무도 당황스러워”한다고 바르게 지적한다.² 특별히 비대면 예배의 시행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주일성수 문제,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인식 변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교회학교나 성경공부의 형

1. 2021년 7월 1일 기준. 참고. <https://coronaboard.kr/>

2. 송남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회교육』 494(2020), 23-28. 참고. 김은희, “코로나19(Covid 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예”, 『개혁논총』 53(2020), 101-102; 윤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선교』 46(2020), 205-237.

태 변화 등의 문제로 도전받고 있다.³ 어떤 이는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성도 중에 영성이 약화되거나 주인 의식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⁴ 또 다른 이는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도 교회의 본질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성도의 수가 줄고 헌금이 줄어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새 신자보다는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평 이동 성도에 더 관심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두고 서동일은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이고 뉴 노멀이 되었다. 병들어 있으면서 병든 줄 모르고,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으니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⁵ 어쩌면 코로나19 대유행병 시대는 성도들뿐 아니라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대유행병 시대로 인해서 교회나 성도가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 상황은 어쩌면 흠어져 살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상황과 유사한 듯하다.⁶ 본 글은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상황을 야고보서 본문을 중

3. 최진봉,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좋은나무』 2020년 5월 20일. <https://cemk.org/16877/> 2021년 6월 22일 접속.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인한 주일성수, 성도들의 헌금에 대한 인식 변화, 건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교회학교나 성경공부의 형태 변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참고. 김정형,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육목회를 내다보며”, 『교육교회』 493(2020), 16-20.

4. 박규남은 “온라인 예배가 습관이 되면 기독교 영성은 약화하고 영성의 약화는 가난한 성도와 주인의식을 상실한 성도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공동체 예배의 축소와 약화는 직분에 대한 거절과 공동체 행사 참여에 대한 외면으로 표현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박규남, “코로나19시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기회”, 『활천』 800-7호(2020), 83.

5. 서동일은 “왜 다들 목은 신자들만 바라보나 했더니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많이 와도 헌금이 없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 집사님들은 헌금을 착착하니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한 개척교회 목사의 고백을 소개한다. 서동일, “코로나 시대 신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 『활천』 803-10호(2020), 54-58,

6. 약 5:13-18에서는 영적으로 병든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심으로 재구성해 보면서,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다. 코로나 시대에 성경적 교회와 목회가 무엇인지를 제시한 이승구는 다음과 같이 바르게 지적한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이해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를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목회를 하는 일 자체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성경적 교회와 성경적 목회를 말하는 성경적 교회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⁷ 이승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시련 중에 영적으로 병든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제시된 성경적 해결책은 현대 교회의 성도에게도 올바른 지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글에서는 야고보서의 여는 단락(1:1), 본문의 초반부(1:2-25), 그리고 마지막 닫는 단락(5:19-20)을 중심으로 당시 수신자들의 상황과 당면한 문제, 그리고 저자가 제시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코로나19 대유행병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살펴야 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다.

2.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야고보서 수신자들의 상황

2.1. 시련의 상황

야고보서의 본문 구조는 수신자들이 시련의 때를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고보서의 서신적 구조와 관련하여, 여는 단락(Opening section)과 본문(Body)의 시작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본문의 마지막과 닫는 단

7. 이승구,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성경적 교회의 모습과 성경적 목회,” 『장로교회와 신학』, 16 (2020), 107-26.

락(Closing section)에 대해서는 논의가 많고 합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는다.⁸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는 단락은 1:1, 본문은 1:2-5:18, 그리고 닫는 단락은 5:19-20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⁹ 만약 그렇다면, 1:2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5:13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하면서 본문의 시작과 끝에 고난의 주제를 다룬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저자가 시련과 함께 인내,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당면한 가장 큰 이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시련과 관련 있다고 짐작해볼 수 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디아스포라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 힘겹게 산 듯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신의 초반부와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신의 여는 단락(1:1)에서 저자는 수신자를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ταῖς δώδεκα φυλαῖς ταῖς ἐν τῇ διασπορᾷ)라고 호칭한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각 서신의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해 단순히 ‘너희에게’(ὁμῖν)라고 호칭한 경우가 없고, 거의 모든 서신에서 각기 다른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수신자들뿐 아니라 발신자를 묘사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각 수신자에 대한 호칭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서신의 상황(context)이 저마다 다르

8. 참고 R. P. Martin, *James* (Waco: Word Books, 1988), xcvi-civ.

9. 지면 관계상 야고보서의 구조, 특히 닫는 단락(closing section)의 시작이 어디인지와 관련된 논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간략히 말해서 약 5:19-20은 바울 서신의 닫는 단락의 서신적 요소(epistolary element) 중 하나인 ‘결론적 권면’(concluding exhortation)과 유사하다. 자세한 내용은 주기철,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석문제,”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제11회 신진학자 포럼 자료집을 참조하라. 참고. I. H. Marshall, S. Travis, and I. Paul,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A Guide to the Epistles and Revelation* (2nd ed., London: SPCK, 2011), 264; K. A. Richardson, *Ja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7), 49; D. J. Moo, *Jame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5), 219-38; C. L. Blomberg and M. J. Kamell, *Jame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26-27; Martin, *James*, 217-21.

기 때문이고,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그가 사용하는 표현에 반영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서 1:2의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표현과 함께 전후 문맥 관찰을 통해서 수신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학자들 간에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표현이 인종적이고 지역적 의미로서 팔레스타인 이외의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로서 땅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다.¹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제시된 표현, 특히 ‘흩어져 있는’(ἐν τῇ διασπορᾷ)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간에 이는 수신자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음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을 상기시킬 것이고,¹¹ 만약 이것이 수신자들의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들의 삶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확실히 마틴(R. P. Martin)은 칠십인역(LXX)에서 디아스포라(διασπορά)로 번역된 열두 번의 경우 대부분 ‘버림받은 자’(outcast), ‘두려움’(terror), ‘파괴’(destruction) 등의 의미가 있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사용은 고통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낸다고 바르게 지적한다.¹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저자 역시 서신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시련의 주제를 다루면서, 수신자들이 맞닥뜨릴 법한 ‘여러 가지’(ποικίλοις; ‘of

10. 참고. M. Dibelius, *James* (Philadelphia: Fortress, 1975), 66-68; Martin, *James*, 7-11; S. McKnight, *The Letter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2011), 65-68; Richardson, *James*, 52-56.
11. Richardson, *James*, 54.
12. Martin, *James*, 10. 참고. G. M. Stulac,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3), 30-31; J. Adamson,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1976), 49-52; R. Johnstone, *James*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871, repr. 1983), 25-28.

various kind’, ‘manifold’) 시련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는 아마도 흩어져서 살아가는 수신자들이 겪어야만 했던 모든 종류의 시련을 의미할 것이다.¹³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며 살아야 했던 수신자들은 아마도 평생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흩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 혹은 인종적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평생 이방인으로 살면서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차별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확실히 야고보서의 저자는 수신자들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면서 힘겨운 삶을 영위해 나갔음을 서신의 곳곳에서 암시한다.¹⁴ 수신자들이 평생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는 사실은 1:2-4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명령한다(1:2). 그리고 이어서 “너희 믿음의 시험”(the testing of your faith)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1:3),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신앙의 성숙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1:4). 저자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고 한 것을 보면, 수신자들의 시련이 단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었던 듯하다.

2.2. 시련과 시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지속적인 시련의 상황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tempt)하는 것으로 여기며 자신을 속인 듯하다(1:12-

13. 참고. McKnight, *The Letter of James*, 70-77.

14. 야고보서 곳곳에서 ‘가난’의 주제를 다루고(1:9-11; 2:1-7, 14-17; 5:1-12), 수신자들은 가난한 자들로서 부한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기록한다(2:6; 5:6, 8). 참고. Dibelius, *James*, 39-45; P. H. Davids,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The Paternoster Press, 1982), 16-18, 35-38; Blomberg and Kamell, *James*, 28-32.

18). 앞서 언급했듯이 수신자들은 끊임없이 시련을 겪으며 사는 중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1:2-4).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했을 것이다(1:5-8). 그들이 당하는 시련이 짧은 기간이거나 정해진 기간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끝나지 않거나 평생 지속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야고보서의 수신자 중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 듯하다. 야고보서 1:13에서 저자는 “누구든지 시련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¹⁵ 어떤 이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자는 그들이 시험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있는 ‘자기 욕심’에 의해(ὑπὸ τῆς ἰδίας ἐπιθυμίας) 끌리고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한다(1:14). ‘욕심’(ἐπιθυμία)으로 번역된 표현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본 구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악한 갈망’(evil desire)을 의미한다. 블롬버그와 카멜(C. L. Blomberg and M. J. Kamell)은 이를 “부적절한 목적(대상)에 대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한다.¹⁶ 이와 유사하게 무(D. J. Moo)는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대한 인간의 어떠한 갈망”으로 묘사한다.¹⁷ 저자가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시련과 인내, 그리고 기도

15. 이는 필자의 사역(私譯)이다. 개역개정 성경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라고 번역하지만, 필자는 이를 “사람이 시련을 받을 때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더 자세한 논의는 주기철,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πειρασμός)과 ‘시련’(δοκιμιον)으로 번역된 단어 재고,” 『고신신학』 20(2018), 103-130을 보라.

16. Blomberg and Kamell, *James*, 71.

17. Moo, *James*, 74.

와 의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시련 중에 인내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도한 후에 그 하나님에 대해 의심한다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1:6-7). 아마도 수신자 중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tempt)한다고까지 생각했을 수 있다.¹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시련 중에 인내하면서 그 인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도록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 수 있다.¹⁹

저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자가 자신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둘 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1:15). 먼저 저자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고 한다(1:15a). ‘잉태하다’(συλλαβοῦσα)로 번역된 단순과거 분사는 영어 번역본에서 “잉태할 때…”(when…), 혹은 “욕심이 잉태한 후”(after desire has conceived)로 번역된다. 두 번역이 의미상의 차이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만약 1:15가 자기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어 자신을 스스로 시험받게 한 이후의 순차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욕심이 잉태한 후에 죄를 낳고”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²⁰ 어떤 이는 ‘잉태하다’(‘낳다’, ‘장성하다’)와 같은

18. 데이비스는 ‘끌려 미혹됨이나’라는 표현은 사냥과 낚시의 영역으로부터 빌린 표현으로 본다. 즉, 전자는 낚시줄에 달린 먹이를 보고 물고기가 끌려오는 것이고, 후자는 욕심의 동물이 덫에 놓인 미끼에 미혹되어 끌려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저자는 자기 욕심에 끌리고 미혹되어 스스로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원인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Davids, *James*, 84.

19. 야고보서의 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것’(1:8)으로 묘사한다(참고, 4:8). 그리고 서신 전반에서 두 마음을 품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에 대해 지적하며 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 약 1:15는 ‘그러면’(then) 혹은 ‘다음’(next)을 의미하는 ‘에이타’(εἴτα)로 시작되는데, 이는 상황이 어

생물학적 이미지는 개인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생산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본다.²¹ 분명히 연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생산을 나타내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자기 욕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듯하다. 왜냐하면,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할 때까지는 뱃속에서 9-10개월 동안 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욕심을 오랫동안 품고 있을 때 마침내 죄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지는 문장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의 ‘장성하다’(ἀποτελεσθεΐσα)라는 동사 역시 단순과거 분사이므로 “죄가 장성한 후에/죄가 장성하면”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장성하다’라는 말은 ‘완성하다’(bring to completion), ‘성숙되다’(be fully formed/matured)라는 의미이므로 앞서 사용된 ‘잉태하다’라는 표현처럼 죄가 한 사람 속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충분히 성숙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듯하다.²² 결국,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시험받는 자들이 그러한 상황을 내버려 둘 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려는 듯하다.

저자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행하는 수신자들에게 “속지 말라, 나의 사랑 하는 형제들아!”라고 말한다(1:16). 어떤 이는 이 구절이 앞선 구절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보지만,²³ 또 다른 이들은 1:17-18의 서론이면서 1:16-18을 앞선

땀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즉, 1:15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서 끌리고 미혹되어 시험을 받은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것이다. 저자는 1:14에서 사용된 ‘욕심’(ἡ ἐπιθυμία)이라는 단어를 연결어로 사용하여 계속해서 설명한다.

21. Blomberg and Kamell, *James*, 72.

22. 약 1:13-18은 1:2-4와 병행을 이루고, 1:4의 ‘온전하고 구비하여’(τέλειοι καὶ ὀλόκληροι)와 1:15의 ‘장성한즉’(ἀποτελεσθεΐσα)이 유사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즉, 전자는 시련-기쁨-인내가 온전해질 때의 모습이고 후자는 시련-자기 욕심-죄가 온전해질 때의 모습인 것이다. 확실히 Martin, *James*, 37,은 야고보서의 저자가 “두 개의 ‘온전함’(perfection)을 역설적으로 잇기를 원했다”라고 바르게 말한다. 참고. Davids, *James*, 85.

23. Martin, *James*, 37.

논의의 확장으로 본다.²⁴ 어떤 주장이 옳든지 분명한 것은 1:16은 전후 문맥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1:13-15에서는 성도가 시련을 겪을 때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불러온다고 했다. 그리고 1:17-18에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성도를 피조물 중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분으로 묘사한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를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므로 시련 중에 하나님이 성도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일 것이다. ‘속지 말라’(πλανᾶσθε)로 번역된 동사는 ‘미혹시키다’(lead astray) 혹은 ‘방황하게 하다’(cause to wander)라는 의미의 동사 현재 수동태, 혹은 중간태이다. 어떤 이는 이 동사를 수동태로 보면서 속이는 주체가 악한 영이나 타락한 천사라고 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중간태로 보면서 속이는 주체를 수신자들 자신으로 본다.²⁵ 앞선 단락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을 시험(tempta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 곧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흠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자들이었다(1:2). 시련을 대할 때 기쁘게 여기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인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 온전한 모습을 가지게 된다(1:3-4). 그들은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했지만, 지속하는 시련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한 듯하다(1:6-8).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tempt)한다고 말한 듯하지만(1:13a), 저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라고

24. Blomberg and Kamell, *James*, 72-73.

25. Blomberg and Kamell, *James*, 73.

정확히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1:13b), 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성도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려는 분이기 때문이다(1:17-18). 그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들 속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1:14). 수신자 중에는 그들 속에 있는 욕심을 오래 품고 있으면서 죄를 짓고, 이를 반복함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 있었던 듯하다(1:15). 따라서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권면한다(1:16).

3.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서신을 끝맺는 마지막 단락(5:19-20)에서 자신이 왜 서신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즉, 수신자 중에 있을법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5:19에서 사용된 ‘미혹되다’(πλανηθῆναι)라는 동사가 앞서 살펴본 1:16에서도 사용되어 ‘속지 말라’로 번역된 것이다. 앞서 ‘속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성도가 시련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분으로 여기지 말라는 의미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성도를 시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성도를 시험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 스스로 시련을 겪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본 구절의 ‘미혹되다’라는 동사는 가정법 수동태이지만, 1:16에서와 같이 수동태적인 의미보다는 중간태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미혹된 것이다.²⁶ 저자는 수신자 중에 스스로 미혹되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려고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이다.²⁷

마지막으로 저자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5:20)라고 말하며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상기시킨다.²⁸ 여기서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라고 했는데, 주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 ‘그의 영혼’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많다.²⁹ 그러나 5:19에서 밝히듯이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와 ‘누구든지 돌아서게 하는 자’ 두 부류를 말한다. 그리고 5:20에서 다시 이 두 부류를 ‘죄인들’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로 묘사한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류 중에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돌아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이며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의 영혼’의 주체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와 ‘죄인들’로 지칭된 자들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문장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누구의 죄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 문제 역시 일차적으로

26. 마틴은 ‘떠나다’라는 단어 배후에는 우상숭배 사상과 도덕적 이원론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변절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저자가 앞서 3:15와 4:7에서 올바르게 않은 행동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Martin, *James*, 218-19.

27. 무는 ‘진리’가 기독교 교리를 넘어 복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Moo, *James*, 236-37.

28. “너희가 알 것은”(γινώσκετω ὅτι)으로 번역된 동사는 3인칭 단수 명령형이고, 이 동작의 주체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5:19)이므로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또는 “그는 알아야 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

29. ‘그의 영혼’과 관련하여 어떤 이는 ‘돌아서게 하는 자’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McKnight, *James*, 458-60.

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대 문헌에 죄인을 돌아오게 한 자가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의 허다한 죄가 덮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³⁰

서신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 5:19-20은 앞서 1:12-18에서 제시한 수신자들의 상황, 곧 흠어져 살면서 시련을 겪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기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첫째, 1:16의 '속지 말라'(Μὴ πλανᾶσθε)로 번역된 동사와 5:19의 '미혹되다'(πλανηθῆ)로 번역된 동사가 동일한 동사(πλανᾶω)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1:14-15에서 자기 욕심과 죄,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5:20에서 다시 죄인과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1:18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라고 말하는데, 5:19에서 미혹되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의도적으로 동일한 단어와 주제를 반복해서 사용한 듯하다. 저자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새롭게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혹되어 그들을 창조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한 그 말씀을 떠났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수신자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을 존재하게 한 말씀을 떠난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수신자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라고 말하며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 이들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30. 맥나이트는 구원받을 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이고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주장한다. McKnight, James, 458-61. S. Laws, *The Epistle of Jame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0), 241,

(5:13-18).³¹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마도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4. 심어진 말씀을 은유함으로 받으라

영혼을 사망에서 구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믿고 행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라 수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피조물 중 한 첫 열매와 같이 되게 하셨다(1:18). 저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수신자들에게 알린 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1:19)라고 말한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한 것에 대한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³²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연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듣는 것은 타인의 말을 듣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의미인 듯하다. 왜냐하면, 첫째, 앞서 하나님이 수신자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자들은 먼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1:19-20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말을 속히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둘째, 1:21은 추론 접

31. 주기철, "야고보서 5:14의 ἄ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석문제”를 참조하라.
32.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에 대한 목적으로 학자들은 공동체 내의 타인의 말, 야고보 자신의 조언, 복음, 토라, 지혜, 또는 1:21의 심어진 말씀 등을 제시한다. 참고. McKnight, James, 137을 보라.

속사(inferential conjunction) ‘그러므로’(διό)로 시작하는데, 이는 1:19-20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결책을 1:21에서 제시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1:21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셋째, 1:22-25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³³

야고보서 1:19-20에서 말씀을 속히 듣는 것,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1:21a)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1:19-20에서 언급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 곧 말씀을 더디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속히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상태임을 암시한다. 이러한 상태는 1:14-1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죄를 짓고, 죄짓기를 지속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리와도 같다. 그리고 5:19-20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1:21b에서 주어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말씀이 서신 전체에서 지적하는 수신자들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암시한다. 그러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33.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구약의 모세 율법보다는 이를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참고, D. G. McCartney, *Jam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9), 122.

개역 개정 성경에서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번역된 것 중 ‘마음’에 해당하는 표현은 헬라이어 원문에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심어진 말씀’(τὸν ἐμφυτον λόγον; the implanted word)으로 묘사되었다. 형용사 ‘심어진’(implanted)과 함께 이어지는 문장에서 ‘영혼’(ψυχή)이라는 명사가 사용되어서 ‘마음에 심어진’으로 의역을 한 듯하다. 헬라적 사고에서 ‘심어진’(ἐμφυτος)이라는 표현은 타고나거나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을 의미했다.³⁴ 본문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출생에 관해 말하지는 않지만, 앞서 하나님에 의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것에 관해서 말했다(1:18). 어쩌면, 저자는 수신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실, 곧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심어진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듯하다.³⁵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δέξασθε)고 했는데, ‘받아들이다’(δέχομαι)로 번역된 동사가 어떤 본문에서는 ‘믿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고려해 볼 때(행 8:14; 17:11; 살전 1:6 등), 심어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문맥(1:22-25)을 볼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말씀을 행하는 것도 포함하는 듯하다.³⁶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ἐν πραύτητι) 받으라고 한다. 이 전치사구는 1:21의 문장 중앙에 위치하는데, 어떤 사본에서는 쉼표가 전치사구 뒤에 위치하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를 번역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학자들 간에 논의가 많다.³⁷ 그러나 학자 대부분은 쉼

34. Blomberg and Kamell, *James*, 88.

35. J. MacArthur,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Chicago: Moody Publisher, 1998), 75.

36. McCartney, *James*, 117-18.

37. 만약 쉼표가 ‘온유함으로’ 뒤에 위치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내 버리고”가 되고 쉼표가 앞에 위치하면 개역개정 성경처럼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가 된다.

표가 ‘온유함으로’의 앞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번역한다. ‘온유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본 구절에서는 ‘겸손함’(humility)으로 사용되어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으라는 의미이다.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겸손의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는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이나 부덕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겸손은 부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다(참고. 마 11:29). 야고보서의 저자 역시 부한 자에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하거나(1:10),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한다(3:13). 본 구절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는 것은 자기 욕심, 성내는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1:14-15, 19, 21a).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³⁸

수신자들이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τὸν δυνάμενον σώσαι τὰς ψυχὰς ὑμῶν)라고 번역된 문장은 분사구문으로, 앞서 제시된 ‘그 심어진 말씀’(τὸν ἔμφυτον λόγον)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1:22를 ‘그러나’(δέ)로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

참고. McKnight, *James*, 142; McCartney, *James*, 117.

38. 약 1:21에서 저자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리고 ‘버린 후’와 ‘받으라’를 대조하는 듯하다. 수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고 있기에 그들에게 먼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린 후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한다.³⁹ 앞서 1:21에서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심어진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즉, 심어진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표라면,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⁴⁰

5. 요약 및 적용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중에는 흠어져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었던 듯하다. 서신 전체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된다. 본 글에서는 그중 한 가지, 곧 시련 중에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자신을 시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살펴보았다(1:12-15).⁴¹ 그러나 그들은 하나

39. 약 1:22의 사역(私譯)은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자신을 속이면서 단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이다.

40. 지면 관계상 약 1:22-25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하지만, 여기서 저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듯이 잠시 말씀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41. 야고보서 전체에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곧 영적으로 병든 자를 다양하게 묘사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을 보인다(1:1-8). 둘째,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인다(1:16, 22, 26; 1:19-27). 셋째,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차별하고, 온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중 하나를 범한다(2:1-13). 넷째,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다(2:14-26). 다섯째, 무분별하게 선생이 되어 입에 재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하려고 한다(3:1-12). 여섯째, 하늘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땅의 지혜로 행한다(3:13-18). 일곱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4:1-10). 여덟째, 형제를 비방함으로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어 판단하는 교만을 행한다(4:11-12). 아홉째,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할 수 있다

님이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며(1:13),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변함없이 내려 주고(1:17), 그 택한 자를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1:18). 그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1:14), 그리고 자기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짓기를 계속하면 그것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아야 한다(1:15). 따라서 그들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시험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한다고 속이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1:16). 저자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그들이 지은 허다한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려고 수신자들이 속한 공동체에 그들을 돌아서게 하라고 명령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음을 입은 자들이 미혹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났기에,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 해야 한다(1:19-20). 또한, 그들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그들에게 심어진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1:21). 즉,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1:22-25).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다(1:25). 그뿐만 아니라 온 교회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곧 영적으로 병든 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한다(5:13-18).

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시련의 상황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한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병 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2년이 다

고 확신하는 교만을 행한다(4:13-17). 열째, 종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부를 축적하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다(5:1-6). 열한째, 서로 원망하면서 당당한 시련을 피하고자 맹세를 남용한다(5:7-12). 참고. 주기철, “야고보서 5:7-12가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내의 자세,” 『고신신학』 21(2019), 33-68.

되어간다.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진자의 수는 늘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로 코로나19 대유행병 시대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또한, 지금은 이전에 표준(normal)이었던 것이 비표준(abnormal)이 되고 비표준(abnormal)이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에, 글을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성도와 교회 모두가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어쩌면 많은 성도, 그리고 교회가 야고보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교회 역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² 앞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교인의 수평 이동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얼핏 보면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의 문제로만 여겨질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예도 있음이 밝혀졌다. 그 이유에 대해서 최성훈은 한 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분별하는 교회,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온라인 입소문을 통해 부상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⁴³ 성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가 아무리 오랫동안 지속한다고 해도 심어

42. 김정형은 코로나 시대에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나 전통적인 교회 생활에 회의를 품는 기독교인도 생겼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성도가 대면 예배와 교제를 그리워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복음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본질적인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면서 동시에 비본질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바르게 주장한다. 김정형,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육복회를 내다보며,” 19-20. 참고. 고원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앙교육의 원칙 성경, 교육, 신앙을 다시 생각하기,” 『교육교회』 298(2020), 10-15.

43. 최성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한국교회의 공공성: 예배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47(2021), 77; 박현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다가왔을까?” 『뉴스앤조이』, 2020.9.4,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2021년 6월 30일 접속).

진 말씀을 믿고 실천한다면, 이 시련의 기간에도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고 그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원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앙교육의 원칙 성경, 교육, 신앙을 다시 생각하기.” 『교육교회』 298(2020): 10-15.
- 김은희. “코로나19(Covid 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대처에 관한 연구 예.” 『개혁논총』 53(2020): 99-122.
- 김정형.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육목회를 내다보며.” 『교육교회』 493(2020): 16-20.
- 박규남. “코로나19시대,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기회.” 『활천』 800-7호(2020): 80-85.
- 박현철.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다가왔을까?” 『뉴스앤조이』 2020.9.4.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2021년 6월 30일 접속).
- 서동일. “코로나 시대 신앙적 위기 극복을 위한 교회의 노력.” 『활천』 803-10호(2020): 54-58.
- 송남순. “코로나19 이후의 기독교교육: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교회교육』 494(2020): 23-28.
- 윤영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학과선교』 46(2020): 205-37.
- 이승구.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성경적 교회의 모습과 성경적 목회 1.” 『장로교회와 신학』 16(2020): 107-26.
- 장신근. “코로나19를 통해 보는 교회교육의 공적 사명과 역할.” 『교육교회』 494권(2020): 15-22.
- 주기철. “야고보서 1장에 나타난 ‘시험’(πειρασμός)과 ‘시련’(δοκίμιον)으로 번역된 단어 재고.” 『고신신학』 20(2018), 103-130.
- _____. “야고보서 5:14의 ἀσθενεῖ τις ἐν ὑμῖν(“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해석문제.” 고신대 개혁주의학술원 제11회 신진학자 포럼 자료집(2021).
- _____. “야고보서 5:7-12가 3.1 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 『고신신학』 21(2019): 33-68.
- 최성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와 한국교회의 공공성: 예배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47(2021): 69-97.
- 최진봉.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좋은나무』 2020년 5월 20일. <https://cemk.org/16877/> 2020년 7월 14일 접속.
- Adamson, J.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1976.
- Blomberg, C. L. and Kamell, M. J. *James*. Grand Rapids: Zondervan, 2008.
- Dauids, P. H. *The Epistle of James*. Grand Rapids: The Paternoster Press, 1982.
- Dibelius, M. *James*. Philadelphia: Fortress, 1975.
- Johnstone, R. *James*. Pennsylvania: The Banner of Truth Trust, 1871, repr. 1983.
- Laws, S. *The Epistle of James*.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1980.
- MacArthur, J. *The MacArthur New Testament Commentary, James*. Chicago: Moody Publisher, 1998.
- Marshall, I. H., Travis, S., and Paul, I. *Exploring the New Testament, vol. 2: A Guide to the Epistles and Revelation*. 2nd ed. London: SPCK, 2011.
- Martin, R. P. *James*. Waco: Word Books, 1988.
- McCartney, D. G. *James*. Grand Rapids: Baker Publishing Group, 2009.
- McKnight, S. *The Letter of James*. Grand Rapids: Eerdmans, 2011.
- Moo, D. J. *James*. Nottingham: Inter-Varsity Press, 2015.
- Richardson, K. A. *James*. 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1997.
- Stulac, G. M. *James*.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3.

Abstract

A Lesson from the Book of James to Churches in Covid-19 Pandemic: Receive with Meekness the Implanted Word(James 1:21)

Prof. Dr. KiCheol Joo
(Faculty of Theology)

Now the world is facing many challenges in all areas of society, economy, and culture due to Covid-19. The church is also in turmoil, facing situations that have never been dealt with before. Above all,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vaccinations, it is not yet known when the Covid-19 pandemic will end. For this reason, many saints can completely leave the words of truth or live a religious life without the essence of faith. In other words, people may be living with a spiritual illness without knowing whether they are sick or not. Such situation seems similar to the one faced by the recipients of the book of James, who had to live in diaspora and undergo various trials. This article tries to reconstruct the situation faced by the recipients of the book of James to recognize what the fundamental problems are and what solutions the author presents to the recipient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fact that saints born with words should not wander away from the word of truth during trials, and if such thing happens, they should humbly believe and practice the words implanted when they were born.

Key words: Covid-19, Born with word of truth, wander away from the truth, implanted words, humbly accepting the word of truth

교의학

코로나19 시대의 창조와 섭리 이해

이신열(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초록]

본 논문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2020년 상반기 이후 기독교적 관점에서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많은 논문들이 국내에서 출간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주로 실천적 주제들(예배, 교육, 선교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독교 교리를 코로나19의 관점으로 다루는 글들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본 논문은 창조와 섭리라는 교리에 집중한다. 먼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조직신학자들의 창조에 관한 견해를 섭리와 관련하여 살펴본 후에, 섭리의 경우 기존의 교리적 프레임 대신에 생태와 환경의 관점에서 고찰하며 특히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고찰